

#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2022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2. 11. 8.	
이사정수	15 명	재적이사	15 명

1. 회의일자 : 2022. 11. 24.(목)

2. 회의장소 : 마포중앙도서관 5층 문학창작실

3. 출석임원 : 이사 12명(박홍섭, 윤경진, 이재홍, 정애주, 최병길, 고정무, 구영석, 이세권, 김은영, 이인숙, 김병기, 한정우), 감사 2명(김덕산, 류경현)

4. 결석임원 : 이사 3명(김영식, 이성환, 윤호중)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3년도 사업계획(안)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무국장 임용의 건

6. 회의내용

- 최보운 사무직원 : 안녕하십니까? 장학재단 사무직원 최보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이사, 감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제4차 이사회에 재적이사 15명 중 과반수인 12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김은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우리 재단 당연직 이사로 취임하시어 오늘 처음 이사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의 개회 선언과 이사회 안건에 대한 상정이 있겠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이사님, 감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새롭게 선임된 김은영 이사님을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 감사님들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쌓여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박홍섭 이사장 : 제1호 의안 '2023년도 사업 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최보운 선생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최보운 사무직원 : 2023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입입니다. 기부금 4억원,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2억7,931만원, 전기이월금 5억2,818만8,623원을 합하여 12억749만8,623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지출입니다. 장학사업비로 4억4,160만원, 인건비로 1억260만7천원, 운영비로 7,591만1천원, 예비비 200만원, 차기이월액 5억8,538만623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장학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항목과 지급임차료 항목에서 일부 세목 요금이 인하되어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지급수수료 항목에서 일부 수수료 요금이 인상되어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이사 : 내년도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몇 프로 정도인가요?
- 최보운 사무직원 : 기본재산은 정기예금과 채권으로 운용되는데 정기예금은 약2~4%로 다양합니다.
- 이인숙 이사 : 기부금 수입이 4억으로 잡혀있잖아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똑같거든요. 올해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 최보운 사무직원 : 현재까지 2억 4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그런데 연말에도 기부하시는 분이 약속이 돼 있기도 하고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 김병기 이사 : 예산서에 보면 장학재단 홍보 행사 1천만원,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보운 사무직원 : 네. 장학재단 홍보 행사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대회, 마포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음악회 등 홍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물 제작의 경우 이러한 행사들과 장학사업 홍보에 쓰일 현수막과 리플릿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류경현 감사 : 이자 수익이 기본재산 120억에 금리가 4%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추정 2억 7천만원은 너무 낮게 잡으신거 아닌가요?
- 최보운 사무직원 : 현재 기본재산에 대한 정기예금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이며 계산했을 때 2억 7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 류경현 감사 :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최보운 사무직원 : 그 부분은 따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류경현 감사 : 해지해봐야 1%면 지금 금리가 4.5%라고 하면 기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정기예금을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그래서 다음 사항에 정관 개정안이라고 올렸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1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운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관에 보니까 금융전문위원으로 해가지고 다섯 사람에서 일곱 사람까지 구성할 수 있어서 이사 중에서 이런 분들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관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최병길 이사 : 지금 지출예산 내역서에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네요. 거의 다 비슷한데 굳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사무국 운영에서 야간근로수당이 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액했고, 지급 수수료 중에서 세무컨설팅 수수료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배 이상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안에 대해 보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보운 사무직원 : 금년도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직원 1명 기준으로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국장님께서 새로 오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명으로 추정을 해서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조금 증액을 했구요, 세무 컨설팅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 컨설팅 건부터 금액이 인상 되었으며 대금 지불이 1년씩 밀려있어서 대금 지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 금년도 계약 건과 내년도 계약 건이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정애주 이사 : 질문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했죠?
- 최보운 사무직원 : 작년에 4억 5400만원정도 했습니다.
- 정애주 이사 : 금년엔 왜 더 적나요?
- 최보운 사무직원 : 코로나19 이후로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장학금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 정애주 이사 : 제 생각에는 장학금 쪽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은 거의 묶여져 있고 복리후생비에 보험료가 어떻게 이렇게 다 나가는거죠?
- 김은영 이사 : 이거 4대 보험은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 이인숙 이사 :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따로 구분해서 별도 빼는거구요.

- 정애주 이사 : 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보험료를 일부러 끌어들이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기본재산편입에 강점이 있는 예산인 것 같아 늘 그제 마음에 스트레스입니다.
- 한정우 이사 :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는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줄었고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는 없던게 생겼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대체되는건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 최보운 사무직원 :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과 예산회계시스템을 올해 2월에 도입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 항목으로 예산이 통으로 잡혀있었어서 내년도에는 세분화시켜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영 이사 : 아까 정애주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동결이 되었고, 이자율에 의해서 인컴이 더 늘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면 차기 이월액으로 그 부분이 넘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만큼 장학금의 금액을 높이는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신 거죠? 가능하시다면 지금 류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자 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여기 1억 이상의 인컴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 고유 목적 사업인 장학 사업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기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 최병길 이사 : 이제 일리는 분명히 있으신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라고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좀 후하게 쓰면 그 다음엔 본의 아니게 축소시켜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월액을 어느정도 한다는 거는 미래에 이자가 떨어졌어도 이자 수익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좀 더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가 지켜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게 더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건 우리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건 어떤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한 비슷하게 간다고 봤을 때 이자율은 변동이 생기니까 후에는 또다시 불리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장학 지급 금액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애주 이사 : 저희 이사들이 모여서 항상 장학재단 지급이 중단될까봐, 줄어들까봐 계속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재산 증식을 한다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번도 더 많이 주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제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목표가 뭔지 진짜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갑론을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도 확인해본적 없습니다. 그래

서 제 걱정이 지금 120억 가까이 모여 있죠.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그래도 내년에 한명이라도 더 주자라는 목표로 가는 예산하고 그런거 생각없이 가는 예산을 계속 통과해 가는게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수고한 거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왜 모이냐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 이인숙 이사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장학재단에 이자 수입이라는거는 항상 금리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올라가면 어느정도 수입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의 정기 후원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해서 정기회원이 많이 늘어나는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장학재단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기본적으로 기부금이 어느정도 탄탄대로를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마다 목표치가 올라가야 우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기부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박홍섭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23년도 사업 계획(안)의 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그럼, '2023년도 사업 계획(안)의 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 박홍섭 이사장 : 제1호 의안 '2023년도 사업 계획(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박홍섭 이사장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최보운 선생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최보운 사무직원 : 본 안건은 마포구 직제의 개·폐 등으로 당연직 이사의 직책이 변경되어 장학재단 정관 제20조 제6항에 따른 정관 변경입니다. 또한 지난 2차 이사회 때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구성 대상을 추가하여 재단의 실질적인 상황을 잘 아시는 이사님들이나 법인 관계자와 경제 및 금융 전문가가 함께 기금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소위원회는 22년 4

월 20일로 임기가 만료하여 새롭게 구성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홍섭 이사장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산 감사 :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기부금이 8억이었구요, 19년도에 5억 7천이었구요, 20년도에 4억 1500이었구요, 21년도에 3억 3600원인데 기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길 이사 : 정관 변경의 건을 훑어 보니까 특별히 큰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거는 직제개편에 의한 거고 다음거는 보완된 정도라서 특별히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고정무 이사 : 저도 없습니다.
- 김덕산 감사 : 38조 소위원 선임을 한다는 절차는 따로 38조에 담지 않아도 되나요? 선임 자체를 소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 최병길 이사 : 김감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사장님이 임명을 할건지 선임을 할건지 부분도 명확하게 하면 좋겠네요.
- 박홍섭 이사장 : 네네 그거를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는 7명까지 가능합니다.
- 최병길 이사 : 이거는 제 사건인데 이사장님께서 정하셔서 당사자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든 그것으로 끝내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정애주 이사 : 의결권이 있거나 결정권이 있는건 아닌거니까 예를 들어 이사장님이 필요해서 구성하시고 필요 없으면 개최 안하시면 되니까요.
- 김은영 이사 : 38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법인 관계자, 경제 및 금융 전문가 등으로 한둘을 등으로 임용한다라든가 구성한다라든가 이렇게 요구사항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 윤경진 이사 : 소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법인 관계자, 경제 및 금융 전문가 등을 임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인숙 이사 : 그러면 이사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전문가 등으로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회에 한번 더 의견을 받는건 어떨까요? 이사회 할 때 이런식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을 받는거죠.
- 정애주 이사 :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법인 관계자, 경제 및 금융 전문가 등으로 이사장이 구성한다로 하시는건 어떨까요?
- 최병길 이사 : 구성보다는 선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 이인숙 이사 : 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우리 이사회 이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하지 않을까요?
- 정애주 이사 : 소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어디까지나 이사장님의 자문위거나 소위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구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이사 : 정관은 이렇게 하고요,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한 다라고 하고 정관은 깔끔하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규정에다가 모으면 될 것 같아 요.
- 이재홍 이사 : 지금까지는 소위원회가 계속 38조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38조에 다 있었는데 다시 경제 및 금융전문가 이런 말을 넣으니까 제 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이 말 없어도 등 하나 때문에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타 여 러 사람들을 얼마든지 둘 수 있는건데 이사장님께서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 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 박홍섭 이사장 :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해서 지금 소위원회가 7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 으니까 4명은 이사가 참여하고 3명은 전문가를 찾는걸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걸로 매 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이사전원 : 네.
- 박홍섭 이사장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박홍섭 이사장 : 제3호 의안 '사무국장 임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최보운 선 생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 현재 재단의 사무국장 1명이 공석인 관계로 10월 26일부터 공개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자는 사무국장 직위 4명으로 전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면접심사는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총 5명을 위촉하여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사무국장 직위는 이현이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애주 이사 : 면접관이 누구예요?
- 박홍섭 이사장 : 우리 재단 인사위원회 2명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 3명으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수십명, 수백명 뽑을 때에는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것이 효과가 있는데 이게 1명을 뽑는데 블라인드로 한다는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게 충분하게 우리가 찾는 사람을 정말로 찾아낼 수 있는 건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면접에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인사위원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좋은 분을 뽑아주셨습니다. 차순위자가 있는데 최종 합격자가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애주 이사 :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희 재단이 정파, 정치, 출신지 이런걸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세대들을 장학생으로 뽑는 일인데 계속 정쟁에 시달리는 그런건 좀 안했으면 좋겠어서 혹시라도 말씀드립니다.
- 한정우 이사 : 차순위자가 있다고 했는데 합격자가 혹시 신원 조회라든가 통과 안되면 기간이 또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 같이 올려서 차순위자도 결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 김병기 이사 : 여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 박홍섭 이사장 : 네.
- 정애주 이사 : 그러면 한정우 이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로 한나라고까지 결정하고 의결하시면 되겠네요.
- 이재홍 이사 : 아까 3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합격자가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상태에서 이 논리가 맞지 이미 통과했는데 나중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최병길 이사 : 우리 이재홍 이사님이 말씀하신거는 참고를 하셔야해요. 여기서 최종 결론



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신원조회까지 끝내는게 좋고, 사실 요새는 3개월 내에 관두잖아요? 예를들어 차순위자로 한다고 하고 그때가서 연락하면 그 사람 이미 다른데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원조회까지 마치고 의결을 받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보운 사무직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신원조회까지 마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제3호 의안 '사무국장 임용의 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박홍섭 이사장 : 그럼, 이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이사전원 : 동의합니다.
- 박홍섭 이사장 : 제3호 의안 '사무국장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박홍섭 이사장 : 회의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모든 안건의 의결이 끝이 났고 의결서에 서명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제4차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